

지역 매아리

고창군수배 패러글라이딩대회 성료

고창군(군수 박우정) 방장산 활공장에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2017 고창군수배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번 대회는 (사)대한민국의항공회가 주최하고 고창군패러글라이딩협회(회장 유정권)가 주관한 가운데 약 1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본 대회는 장거리 스피드 경주(X-C)로서 대회 성적이 국내 및 세계랭킹에 반영되는 국제급 항공대회이며, 국내 선수를 비롯 중국과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선수들도 참가해 대회를 빛냈다. 대회결과 남자부 개인전 1위 하지경, 2위 임문섭, 3위 오석출 선수가 차지했으며, 여자부 개인전은 1위 장우영, 2위 박정훈, 3위 백지희 선수가 차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경찰 공직기강 확립 간담회

부안경찰서는 경찰 기강을 확립하려고 지난 8일 경찰서 대강당에서 이동민 서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경찰은 이날 비위 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노력에도 기강해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이 범정부적 화두로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분위기 조성차원으로 서장이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며 부드러운 분위기로 유도하여 직원들의 다양한 경험담과 의무반 예방 방안을 서로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이동민 서장은 특강을 통해 "그동안 비위 없는 건강한 부안경찰이 되도록 노력한 전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오직 주민을 위한 치안행정을 펼쳐 주민이 신뢰하고 사랑받는 부안경찰이 되자"고 강조하였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 동동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 공청회 열려

동동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위원회(위원장 김용진)는 지난 11일 주민 공청회를 가졌다. 이 사업은 2016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올해부터 기본계획을 수립, 2020년까지 총 4개년에 걸쳐 철석리 6개 마을에 54억60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 강화 사업이다. 면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에 반영, 수립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사회적기업, 지역경제 살린다

마을기업 육성 통해 맞춤형 일자리 제공 정읍경제 활력 꾀해

정읍시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꾀하고 있다. 9월 현재 정읍지역 사회적기업은 12개소, 마을기업은 15개소이다. 이들 기업에서는 연3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기업 현황을 보면, 마을기업인 농업회사법인 풍사방 유한회사(칠보면 소재)는 2012년 작은 창업 공동체로 출발한 이후 2013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됐고, 2014년 전국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우량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현재 연매출 10여억원을 올리는 기업으로 자리 잡으며,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마을기업으로 우뚝 섰다. 또한 장애인에게 새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으로 꼽히는 알콩달콩가게 유한회사(북면 소재)는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2년 이상 고용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정읍시 제1호 장애인 사회적기업으로 지정(2017.3월)됐다. 이밖에도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여 죽을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인 주식회사 두손푸드(칠보면 소재) 역시 매출액 15억원(2017년)을 바라보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지역주민들에게 알찬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정읍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시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시는 전문 컨설팅 기관이 주관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아카데미 운영(50개소)과 우수 사회적경제기업과 신규기업 간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는 멘토제 운영(8개소) 등 다양한 노력을 기

울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 7월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최로 열린 '2017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사회적 경제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며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시는 이후에는 전문가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컨설팅 봉사에 나서는 프로보노(Pro Bono) 지원 서비스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생기시장은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은 물론 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본격화

역사·문화·특산품 등 고유한 특성 즐기고·살거리 제공하는 특화 공간으로

고창전통시장이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특화시장으로의 변모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2017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된 고창전통시장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특산품 등 고유한 특성을 즐기고, 살거리를 제공하는 특화된 공간으로 3년간 개발되고 있다. 고창전통시장은 올해 사업의 핵심방향으로 에너지 활력소 건강한시장으로 정하고 시장내부에 모양성을 연계한 특화환경 개발 협동조합 협업을 통해 장어탕과 장어빵을 개발하는 등 부족한 먹거리도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모양성 관광객을 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해 봄내음 쇼핑 관광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를 진행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벤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인회에서는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상인 주도형 주 1회 품물 동아리 활동과 우수시장 벤치마킹을 위한 월 1회 시장탐험대를 운영하는 등 상인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창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1년차를 맞아 마스터플랜에서 수립된 다양한 콘텐츠



고창전통시장이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특화시장으로의 변모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를 제공해특화된 시장으로 고창의 품요로운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융합해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전통시장 상인회 최만영 회장은 "상인회가 앞장서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고창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명소로 전통시장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은 고창읍성, 판소리박물관, 세계유산 고창고인돌유적, 선운산도립공원, 고창갯벌과 운곡습지 등 볼거리와 풍천강어, 복분자, 멜론, 수박, 땅콩, 고추 등 먹거리와 연계해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을 찾는 사람들에게 문화와 관광이 아우러진 전통시장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군정발전 정책아이디어 제안공모

고창군, 다음달 20일까지 신청·접수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행정 추진으로 '한국인의 분향 고창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군정발전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 군은 지역의 주인인 군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 등을 직접 제안하고 선정된 아이디어에 군 예산을 반영해 실현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오는 10월 20일까지 접수 받는다. 고창군정 발전에 관심 있는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공모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농·수·축산업 활성화 방안,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등 군정 전반의 분야에 대해 범위의 제한 없이 받고 있다. 접수는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의 참여마당-국민제안 코너를 통하여거나 국민신문고(www.epople.go.kr)-국민행복 제안-공모제안 코너에서 하거나 고창군청 기획예산실 기획팀(문의 063-560-2244)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가져

부안군은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설명회가 11일 김종규 부안군수를 비롯한 각계 단체와 노인회, 이장 부녀회장, 지역주민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군은 이날 2018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관 주도의 일방적인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제안·선택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절차, 2017년도 재정현황 및 분석, 2018년 재정운영 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 등에 관한 설명에 이어 참석 주민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군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통해 모든 정책의 바탕에 소통·공감·동행 정신을 새겨 넣고 군민의 생각을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부안군은 오는 23일까지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신청 받아 각 읍면 지역회의를 거쳐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8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정읍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는 63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또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키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일괄고지 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30일까지이다. 단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10일까지 연장됐다. 납부 장소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

는 우체국을 방문해서 납부하거나 은행 CD/ATM을 이용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지로납부(www.gira.or.kr)나 위택스(www.wetax.go.kr) 고지서에 기재된 개인별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해도 된다.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한편 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 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기타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539-5282~4) 재산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and Gansanmyeongju.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부안강산뽕주 Premium Otdi Wine'. It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